

##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29(월) 제148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성과를 평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금년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평가서류 작성 등 '가짜일' 줄이기 등을 통해 지역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9개 경자구역\*의 2025년도 성과를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 생태계구축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 지정시기에 따른 발전정도에 따라 글로벌거점형(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및 지역거점형(6개/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으로 나누어 평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및 중장기 전략체계인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등 우수한 정량·정성적 성과와 함께 미 단시티·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추진 등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여 9개 경자구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DH그룹(주DH오토웨어社, 주DH오토아이社) 유치를 통한 높은 산업집적화 실적,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집행 및 체계적인 인력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등 지역 핵심 자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및 목표 대비 높은 투자유치 실적 등이 두드러졌다.

우수 등급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지원금 및 유공자 포상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21~)은 경자구역별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자구역별로 3~4개 산업군, 60여개 세부산업(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을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핵심전략산업은 새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및 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 산업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우수 성과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성장을 촉진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전략산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461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4614)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요**

- (근거) 「경제자유구역법」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및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산업부고시)」
- (목적) 경제자유구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활용 → 경자구역 성과제고 및 활성화 기여

**□ 성과평가 개선방안**

- ① (공정·수용성 강화) 정량평가를 강화하여 수치 기반의 명확한 평가 체계로 개선하여 공정·신뢰성 제고 및 피평가자의 수용성 확보
- ② (**가짜일 줄이기** 지역의 행정 부담완화 및 효율화) ▲형식적 진행과 지방정부 부담으로 작용한 현장평가를 필요시에 탄력적으로 운영,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을 제공하여 행정부담 완화 등 효율화 추진
- ③ (피평가자 애로 해소) 성과평가 연계성이 부족한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폐지하고,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관리’ 신설
- ④ (성과 인센티브 강화) 실질적 신상필벌 될수 있도록 성과평가 등급 재정지원 배분을 대폭 확대(33% → 50%)

**□ 2025년도 성과평가 계획(안)**

- (대상 및 평가방법)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영관리(30점)’, ‘사업성과(45점)’, ‘미래지향적 생태계 구축(25점)’ 평가부문의 평가지표로 평가
  - (결과 및 인센티브) 평가점수에 따라 3등급(S, A, B)으로 부여하고, 우수 기관은 인센티브(재정·포상 등)\* 제공 및 사후 컨설팅을 통해 성과관리 제고
- \* (재정) 투자유치 지원예산 31억원 배분, (직원 포상) 장관표창 및 단기 연수 제공

**□ 추진일정**

- 경자위(3.30) → '25년 계획 통보(4.1) → 실적제출(4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5~6월초) → 결과통보 및 이의수렴(6월중순) → 경자위 심의(6월말) 등

- (개요)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하려는 산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
  -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화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2.0, 2030비전과 전략(‘20.10)」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착수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및 고시\*
    - \*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21.11.12)
  - 핵심전략산업 기업에는 비수도권 경자구역에 한해 지자체가 임대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등

□ (선정 기간) 2021.11.12. ~ 2026.11.11. (5년)\*

\* 1차 변경(‘25.8.4) : 표준산업코드 변경, 중기부 협업과제, 경자청 수요를 반영/변경

□ (선정현황) 경제자유구역별로 3~4개 산업군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로 세분화하여 선정·운영

**<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현황 >**

경자청	핵심전략산업(산업군/세부사업수)
인천	바이오·헬스케어(12), 스마트제조(17), 항공·복합물류(9), 지식·관광 서비스(19)
부산진해	복합물류·운송(16), 스마트수송기기(24), 첨단소재부품장비(13), 바이오·헬스케어(8)
광양만	기능성화학(10), 그린에너지(14), 금속소재·부품(21), 물류·운송(6)
경기	미래모빌리티(15), 의료·바이오(3), 수소에너지(7), 물류·컨벤션(4)
대구경북	ICT·로봇(20), 의료·바이오(17), 미래모빌리티(19)
강원	휴양형관광·레저(8), 수소에너지(18), 첨단소재·부품(16)
충북	바이오·헬스(21), 스마트IT부품(14), 항공모빌리티(11), 에너지소재·부품(9)
광주	미래형자동차(21), 스마트에너지(17), AI융복합(20)
울산	미래모빌리티(25), 미래화학신소재(16), 수소저탄소에너지(19)

□ (향후일정) 수요조사(~‘26.8) → 선정평가(‘26.9) → 평가결과 통지 및 보완요청(‘26.10) → 관계부처 협의(‘26.11) → 경자위 심의(‘26.12)

\* 일정은 5극3특 성장엔진 발표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